"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실효성 확보해야"

어제 제주도·제주연구원 주최 도민설명회

자치·관광·카지노·환경·1차사업 등 전문가 토론
토론자들 "실익 검토… 정부 설득 논리 개발을"

제주특별자치도가 발굴한 31건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수정·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25일 제주연구원 3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주도·제주연구원 주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 도민설명회'에서 토론자들은 제도개선을 통한 실익을 보다 세심히 검토하고, 정부 설득 논리 개발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는 자치분권, 관광·카지노업, 환경, 수자원, 1차산업, 교통·사회협약, 교육 분야에 대한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됐다.

문성종 제주한라대학교 교수는 관광·카지노산업 분야와 관련 "공평 타당한 지표를 갖고 갱신 허가제를 만들면 카지노 산업도 좋고, 지도감독하기에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기존 카지노산업이 경쟁력 갖출 수 있는 제도 개선을 통해 업계도 도와주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가 발굴한 과제 중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특례' 제도개선(안)은 카지노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유효기간 만료시점에서 카지노업을 계속하려면 갱신허가를 받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현재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의 경우 한번 허가를 받으면 허가취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영구적으로 허가의 효력이 유지되면서 부적합한 카지노 운영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다.

황경수 제주대학교 교수는 교통·사회협약 분야에 대해 "사회협약위원회가 기능 개선이 제도개선으로 이뤄지고 갈등조정담당관, 공공갈등조정관 식의 제도가 만들어져서 전문적 협상이나 민원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는 전국 유일의 제도인 사회협약제도가 자문역할 한정 및 사무국 부재 등 법률적 한계로 인해 사회협약 체결이나 사회 갈등 해소 등의 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사회협약위원회 기능을 확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예산 지원 및 전문위원을 둔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이날 제시된 의견들을 제도개선안에 반영·보완한 후 10월 회기 중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제도개선안은 제주도지원위원회로 제출된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25일 제주연구원 3층 대강당에서 제주특별자치도·제주연구원이 주최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 도민설명회'가 열렸다. 이상국기자

"불법전용 초지 원상복구·실태조사 철저"

오영훈 의원 초지법 개정안
어제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

불법 전용된 초지에 대해 원상복구가 가능하게 하고, 초지관리 실태조사를 지자체의 여건 등에 따라 정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사진)은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발의한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초지관리 실태조사의 시기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지자체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고, 초지전용허가 또는 초지전용신고 없이 불법행위를 한 경우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농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초지의 경우 대규모로 월동작물을 무단으로 재배하는 경우가 많아 농지에서 적법하게 월동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의 고충이 적지 않다.

불법 전용행위를 고발하더라도 무혐의 처리가 되고 있어 매년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초지법'은 불법전용행위에 대해 고발조치를 할 수 있지만 원상복구 규정도 없었다.

초지관리 실태조사는 현행 지자체에서 연 1회 이상 초지의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7월 1일에 조사에 나서는데 8~9월경 월동작물 파종시기와 실태조사 기간이 맞지 않아 제대로된 단속과 현황파악이 쉽지 않았다.

오 의원은 "제주시에서 초지 내 불법전용행위 원상복구와 철저한 실태조사 관리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는데, 국회에서 법안을 심사해 상임위에서 가결시킬 수 있게 됐다"며 "이를 시작으로 연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전심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부미현기자

25일 열린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개막식 전시관 브리핑에서 관람객들이 제주어로 노래하는 제라진 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을 보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공

평화의 섬 역사 들여다보다
JDC, 내달 12일 북페어 개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는 오는 10월 12일 영어교육도시 배움의 길 일원에서 '2019 평화의 섬 제주, JDC Book Fair'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JDC 북페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과 안중근 의사 의거 110주년을 맞아 '평화의 섬 제주 속 항쟁의 역사를 들여다보다'를 주제로 추진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교수와 안중근 의사 유해 찾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김월배 하얼빈 이공대학 교수를 초청해 북콘서트와 초청 강연이 진행된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국회 농해수위, 내달 18일 제주도 국감 예고

국방위, 해군기지 현장점검
환노위, 지사 증인채택 무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오는 10월 18일 제주도청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상임위원회가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일정을 수립했다.

국정감사는 감사대상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통해 실태를 점검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감사는 지자체 주요 현안의 국회 절충 기회가 되기도 하는데 올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주를 찾아 제주 농정을 살필 예정이다.

농해수위의 제주 국감은 매해 기재부의 반대로 국비 지원이 무산되고 있는 농산물 해상운송비 등 제주지역 현안을 전달할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농해수위 소속 오영훈(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의원실 관계자는 "제주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점검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위원회는 10월 18일 제주해군기지 현장점검에 나선다. 국방위 관계자는 "군 기지 현장점검과 격려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까지 농해수위와 국방위가 제주 방문을 확정한 가운데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제주 현장 국감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 지자체가 주요 상임위인 국토위 유치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편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환경노동위원회 증인 채택은 무산됐다. 앞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제주선흘 동물테마파크 등 제주 난개발과 관련해 원 지사를 국감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옛 것을 포용한 미래, 더 큰 제주로"

균형발전박람회 제주전시관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부터 27일까지 전남 순천만 국가정원 일대에서 열리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에서 제주전시관을 구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는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정책을 논의하고 지역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2004년부터 해마다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지역 박람회로 올해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균형발전'이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다.

제주도는 도가 추구하는 균형발전 정책의 비전과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 '옛 것을 포용한 미래, 더 큰 제주'를 주제로 전시관을 구성했다.

전시는 유휴자산을 활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도시재생사례, 도시재생과 연계한 제주신항개발 그리고 카본프리아일랜드 2030 정책을 주내용으로 했으며, 이를 통해 제주의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해 더 큰 제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역의 특징을 표현한 제품의 전시판매를 위한 '지역마켓' 행사에 정보화중앙회마을제주지회 등 4개 업체가 참여하고 제주용암해수를 이용한 음료 전시와 시음을 통해 제주 제품의 홍보도 이뤄진다. 조상윤기자

제 17회
함덕고등학교총동문회 한마음체육대회

동문회원간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모교발전을 위한 **제17회 함덕고총동문회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하오니 동문회원님과 가족 여러분이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19년 9월 29일(일요일) 개회식 : 오전 9시30분
■ 장 소 : 모교 체육관
■ 주최 · 주관 : 함덕고등학교총동문회
■ 문의 : 회 장 고 영 두 (010-3699-1228)
사무국장 양 성 완 (010-3698-7466), 재정이사 고 숙 희(010-4691-2447)

• 역대회장 : 한대섭(제1회), 김훈관(제1회), 임보혁(제6회), 양재동(제11회), 김무근(제10회), 김원보(제12회), 김경칠(제14회), 유창삼(제16회), 김극성(제18회)
• 직전회장 강순언(제19회)
• 회 장 : 고영두(제20회)
• 부 회 장 : 이전배(제21회), 이정국(제22회), 고익환(제23회), 윤재철(제24회), 고영자(제24회), 김용주(제25회), 한석찬(제27회) , 김순여(제27회), 고연실(제28회), 김주영(제28회), 강은주(제30회)
• 감 사 : 오태석(제25회), 이홍숙(제30회)

기별 회장 : 박성준(제18회) 김우일(제19회) 부대일(제20회) 김택준(제21회) 김영인(제22회) 김철호(제23회) 문석부(제24회) 문석환(제25회) 윤기원(제26회) 김순기(제27회) 김태진(제28회) 김보용(제29회) 박두남(제30회) 김명철(제31회) 양태주(제32회) 이호성(제33회) 김경남(제34회) 김영조(제35회) 홍상범(제37회)

함덕고등학교총동문회 회 장 고 영 두

제10회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총동문회
동문 및 가족한마당축제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동문간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기위해
제10회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총동문회 동문 및 가족한마당 축제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19년 9월29일 일요일 오전10시~
장소 | 모교운동장(우천시 실내체육관)

연락처 회 장 백인협(23회) 010-4019-6799
사무국장 김용호(31회) 010-3693-4778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백 인 협 외 동문일동